

'진흙탕 싸움' 광주 중앙1지구, 결국 소송전으로

SPC 최대 주주 한양,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시민단체 "보증서 의혹 진상규명, 특정감사"

광주시 '갈지(之)자 행정' 잡음, 지주들 반발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최대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둘러싼 사업자 간 주도권 다툼이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졌다.

사업자 내분과 특례사업 지연에 따른 지주들의 집단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광주시도 미숙한 '갈지(之)자' 행정으로 크고 작은 잡음을 낳고 있어 사업의 백지화나 장기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빗고을중앙공원개발(빗고을SPC)의 최대 주주사인 ㈜한양은 14일 우빈산업 등 SPC 일부 구성원들에 대한 퇴출 요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한 데 이어 광주지방법원에 시와 SPC를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빗고을SPC에는 한양과 우빈산업

등 3개 업체가 각각 3대 7 비율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인대표 교체, 아전인수식 여론전에 따른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빗고을SPC 측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과 공사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고, 결국 이날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했다.

한양 측은 우선, 소송 제기와 관련해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 제21조와 25조에 따라 한양은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사로 규정돼 있고,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의 합의를 거치고 당연

히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빈산업 등 빗고을SPC 일부 구성원이 한양과의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롯데를 시공사로 선정함으로써 명백하게 제안요청서 등을 위반한만큼 시공사 선정은 무효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에 제출한 퇴출요청서를 통해 "우빈산업 등 일부 구성원은 사업의 대표 주간사인 한양의 사업이행보증서 제출과 협약이행보증서의 만기 연장을 방해한 뒤 허위로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협약이행보증서도 연장하지 않은 채 제출해 빗고을SPC의 민간사업자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빈산업은 지난해말 주주총회를 통해 한양의 대표권과 시공권을 불법 침탈한 이후 시의 사전승인과 SPC 내부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공원공사를 발주했고, 출처 불명의 자금을 무단 차입하고 시공사를 롯데로 선정했다"며 "공모 지침에 따라 우빈산업 등에 대한 즉각적인 퇴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된 각종 보증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고, 땅 소유주들은 주주 간 힘겨루기와 어슬픈 행정에 반발하며 "사업 지연 요소를 조속히 제거할 것"을 요

구하고 나섰다. 광주시 역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협약이행 보증금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서 달 동안 이를 방치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가 하면, 분양가 검토를 위한 출장을 이해 당사자인 SPC 관계자와 동행한 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아마추어 행정'을 이어가면서 행정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

진 상태다. 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드러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귀책 사유가 지속될 경우 사업 취소 등을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최윤희기자



'정인이를 살려내라'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양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단체채팅방에 학생성적 올린 교수...인권위 "인권침해"

대학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인 시험 성적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의 총장대행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19년 진정인 B씨가 소속된 모 학과의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가르친 과목의 성적 점수를 게재했다.

이에 B씨는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카카오톡)에 공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치른 시험 성적이고 과목의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하며 A씨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봤다.

최이슬기자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1심 '징역 8년'

청원 20만 넘는 대만 유학생 사망 사고 법원, 검찰 구형보다도 2년 높은 8년 선고 피해자 친구 "8년도 미흡...관심 계속 필요"

청원진행중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참여인원 : [207,048명]

카테고리	인원/비율
청원시작	2020-11-23
청원마감	2020-12-23
청원인	kakao-***

청원내용

2020년 11월 6일 저녁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추어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순서를 거름도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계절적인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그녀는 한국에 온지 5년이 되어가는 외국인 친구였고, 그 누구보다 본인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수년간의 힘든 타국생활에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깊었으며, 어떠한 친구나 그 자라는 고국보다 더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했을 나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형을 높여 범위 내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민 판사는 "이 사건으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 각막 이식 수술로 렌즈를 착용 못해서 갑자기 시야 흐려져서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민 판사는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형이 6년이라 아쉬웠는데 8년을 선고한 것은 전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A씨는 가정요소가 있어서 양형위 권고형이 4~8년인데 범위 내 최고형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족들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B씨 친구 박모씨는 "8년을 선고한 것은 구형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친구의 삶을 잃은 것인데 8년이 (친구의 삶과) 어떤 비교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